

첨단산업 거점 · 지역발전 허브로 중흥 맞이하러



철도산단 · 영장류자원센터 조성
교통의 요충지라는 이점도 키
'사랑의 쌀뒤풀' 등 복지시책도 추진

입암은 정읍의 봄 길목이다. 남도자락을 혼 혼하게 띠며 갈재(전남·북도계)를 넘어 봄이 조심조심 겨울을 밀어내면 바야흐로 화사한 정읍의 봄이 시작된다. 내장산을 환하게 밝히는 산벚꽃과 정읍의 봄을 더욱 찬란하게 만드는 정읍천 우회도로 벚꽃, 긴 겨울을 이겨낸 연둑빛 새싹들의 생명력으로 정읍은 온통 봄의 기운으로 물들어 간다.

입암산과 방장산 자락에 펼쳐져 있는 입암면은 정읍 최남단에 자리하고 있다. 남쪽에서 한 달음에 달려온 화산(火山)이 입암에 가장 먼저 와 닿는 이유다.

▲첨단과학산업의 거점 · 정읍발전의 허브로

입암면은 일제 강점기 600만명의 신도수를 자랑했던 보천교와 70년대 직물공장 호황으로 정읍의 발전을 이끌었다. 하지만 급격한 세력 확산과 독립운동 지원을 두려워한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보천교가 쇠퇴하고 직물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던 데다 60~70년대 국가의 중공업 우선 정책으로 한때 침체기였다. 그러나 지금 입암면이 제2의 중흥기를 맞고 있다.

철도산단특화단지, 국립영장류자원지원센터, 인근 신정동에 조성돼 있는 첨단산업단지 등을 기반으로 하여 첨단과학산업의 거점이자 정읍발전의 허브(hub)로 우뚝 서고 있는 것이다.

입암면의 이러한 비약적 발전의 중심에는 입암면 하루리 일원에 조성 중인 철도산단특화단지가 있다. 철도산단특화단지 총사업비 210억원을 투입해 입암면 일원 약 23만㎡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8년 12월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농공단지 면적 대비 보상은 98%이며, 농공단지 지정에 관한 절차이행 중에 있다.

이곳에는 정읍시와 주식회사 다원시스가 지난해 11월까지 총사업비 204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입암면 접지리 산 52번지 일원 부지 7만2,744㎡에 건축면적 9,904㎡로 건립된다. 주요시설로 연구보관동과 번식동, 육성동, 검역동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에서 주로 사육하게 될 원숭이는 4.5~6.0kg의 연구용으로, 2종 4000마리(2020년 목표)를 사육·연구하게 된다.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 발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인근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등 3대 국책 연구소와 연계, 신정동에 조성돼 있는 첨단산업단지도 입암면의 탄탄한 경쟁력이다.



중대, 정읍인구 15만 회복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밖에도 자동차 시트분야 감소업체인 이원컴포텍 등 3월 22일 현재 20개 기업을 유치(현재 분양율 57.9%)했고, 앞으로도 기업유치 전망이 밝아 입암은 물론 정읍 발전의 견인차 될 것이다"고 말했다.

▲교통의 요충지 · 주민복지의 요람

이처럼 입암면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교통의 요충지라는 지리적 이점이 크게 작용했다.

내장산 IC가 있는 호남고속도로와 지난해 7월 개통한 국도1호선, KTX와 일반 철도, 지방도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고 KTX 정읍역 등 시가지 권과도 10여분 거리에 있다. 특히 인접 대도시인 광주광역시와는 약 30분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아 최적의 기업 투자 요건을 갖춘 지역으로 손꼽힌다.

입암면은 또 주민복지의 요람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2,800여기가 안정되어 있는 정읍시립묘지가 이곳에 자리하고 있고, 면에서 직영하고 있는 작은 목욕탕은 하루 평균 50여명이 이용하며 지역주민 복지 요람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밖에도 10여년째 운영 중인 '사랑의 쌀뒤풀', 어르신 한글 교육을 위한 '할배학당',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는 '효도밥상' 등도 대표적인 복지시책이다.

▲태어난 경관, 유서 깊은 문화의 역사

'입암(笠岩)'이라는 지명은 입암산(갓바위)이 뿌리다. 입암산은 산세가 높고 험해서 예부터 천혜의 요새였다. 표고 633m 전라남·북도 도계에 위치하고 있는 입암산성은 호남 요새로서의 역할을 다해왔고,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역대에 걸쳐

계속적인 수축(修築)이 이루어졌다. 임진왜란 중인 선조 26년(1593년)을 비롯 1653년(효종 4년)과 1676년(숙종 2년)에도 개축하고 성내 우물을 정비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입암산은 또 차경석이 증산교에서 독립해 잠시 했던 보천교의 임태지이기도 한다. 대흥리가 바로 보천교 본부가 있던 자리이다.

1880년 동학 접주 차치구의 아들로 태어난 차경석은 강증산에게서 도를 전수받고 그의 사후인 1909년 당시 보화교를 창교, 본부를 대흥리에 뒀다. 당시 열 집 남짓의 한촌에 지나지 않았던 대흥리는 보천교의 세가 확장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신자들이 몰려들면서 700호를 헤아리는 대촌이 됐다.

특히 신자들을 중심으로 본부 주변에 직물공장이 들어서 85년까지 호황을 누리기도 했으나 값싼 중국산 직물의 대거 유입과 시설 낙후 등으로 현재는 설 자리를 잃었다.

이밖에도 하루리 상부마을 일대는 한때 '복조리' 생산의 메카이기도 했고, 일제 강점기 일본에 수출될 정도로 깊은 향을 자랑하는 자생녹차인 천원(川原)차는 지금도 '천년의 향'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순창읍 면장은 "입암면은 주민들의 성향이 온순하고 선량하지만 입암산성에서 저항했던 동학 농민운동과 독립운동의 배후세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보천교의 후예다운 기백과 정열이 넘치는 곳이다"며 "산업과 교통, 복지 등 모든 주민이 잘 살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튼튼한 만큼 이를 기반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하는 입암면을 만들어 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2017 군산 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Gunsan Saemangeum International Marathon

“행복한 도전이 있는
축제의 장”



일시 : 2017. 4. 9(일) 08:00
장소 : 군산월명종합경기장
국제공인대회 : Full, Half, 10km, 5km
International Certified Marathon Race
42.195km, 21.0975km, 10km, 5km



www.smgmara.com
www.smgmara.org

참가신청기간 : 2017. 1. 15 ~ 3. 20(65일간)
마라톤사무국 : 063)465-7731, 02)418-7881